실천을 해보지 않는다면 내 마음의 발전도 생활의 발전도 없을 겁니다

☞ A17면에서 계속

한테 기대야죠. 그죠? 명령을 내리는 그 근본에 의지해야지. 그래서 그 근본에서 그냥 거기에 의지하면 정확하게 '어, 여기 의지하는구나.' 하고선 거기 입력이 돼 가지고 그대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딴 데로, 이 수레가 돌아가면서 딴 데로, 자꾸 바깥으로 의지한다면 아무것도 근본에 입력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입력이 되지를 않는 걸요. 거기다 입력을 안 했는데 어떻게 입력이 됩니까? 그러니까 허사무사가 되죠. 그러니까 공덕이 없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무리 네가 그렇게 했어도 공덕은 하나도 없느니라." 하신 이치가 그러합니다.

속가인들은 "왜 부처님의 공부를 해서 해탈을 못 하느냐?" 이런 말들은 잘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살림에만 얽매여서 그렇게 하시니까 못 한다고 하죠. 절 살림이든 바깥의 살림이든 뭐가 다릅니까? 정직하고 진실하게 남의 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생산해서 쓸 수 있는 대로 해야죠. 행복을 누가 갖다 주나요?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거를 누가 갖다 주나요? 또 뺏어 갈 수 있나요? 뺏어 갈 수도 없고 갖다 줄 수도 없는 겁니다.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겁니다. 죽으나 사나 내가 해서 내가 낫고, 내가 하고 내가 살고, 내가 이렇게 작용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살아생전에 그렇게 하고 살던 그 사람들이 자기가…. 왜, 탤런트들이 자기 소임을 맡아 가지고 탤런트 노릇 하다가 막이 내리고 이러면 탤런트들은 자기가 탤런트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자기 분수를 알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게 소임을 맡아서 잘합니다. 해 가지고 끝이 납니다. 막이 내립니다. 그러면 아주 다 벗어난 듯이 좋아서 집으로 또 돌아갑니다. 거기 탤런트들은 죽었다고 하는데 그냥 거기서만, 무대에서만 죽었지 도로 자기네 집에 와서는 아주 그냥 한잔하면서 좋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십시오.

우린 지금 탤런트들이 그 소임을 맡아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소임의 행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소임을 맡은 거를 잘, 어떤 차원의 소임을 맡아서 잘하나 그걸 봐서, 그다음에 또 소임을 줍니다. 안 그렇습니까? 죽는 역할을 잘하면 죽는 역할의 소임을 주고, 거지 노릇을 잘하면 거지의 소임을 주고, 왕의 소임을 잘하면 왕의 소임을 주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림자처럼 모두 펼쳐져서 돌아가는 사실을 우리 눈으로 현재 보고 듣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못 느끼십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느니라. 너희가 소임을 그렇게 맡아 가지고 너희 차원에서,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소임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네 모습은 다시 주어지느니라." 오간지옥이니 또 그 왜, 그림으로 보여주는 영화에 독사지옥이 있고 그렇잖습니까? 독사 굴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거 보셨죠, 모두?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그림으로만 볼 게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우리가 컴퓨터에서 로보트를 시키듯이 정확하게, 그렇게 그 혼백을 그냥 독사 굴에다가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독사가 돼서 나오지 딴 게 돼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었는데 한순간에 그냥 독사로 변해 가지고 이 세상에 출현을 한단 말입니다.

천차만별로 그렇게 변하고 모습이 바뀌지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업신여기고 어떠한 것을 귀중하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생명만 중하고 저 하(下)의 동물들의 생명은 우습게 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생명이요, 우리들의 모습인데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천차만별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감옥이 따로 있어서 죄를 받는 게 아니고요, 이 생시처럼 그냥 독사지옥으로 넣으면 독사로 모습을 가지고 나오게 돼 있고, 소로 넣으면 소가 돼서 나오고, 곤충에 넣으면 곤충이 돼서 나오고 이럴 뿐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모두가 역행을 하고 돌아가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일체 법계의 모든 바다와 같은 그 속에서, 티끌마저도 전부 윤회가 돼서, 즉 바퀴로 돌아가서 바퀴의 굴림을 굴린다. 모든 보살(菩薩)들이 말입니다. 부처님은 명령만 하는 거지, 명령을 하되 보살들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이 원자가 부처님이라면, 예를 들어서 입자들이 전부 보살들입니다. 그런데 입자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로 원자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자가 돼서 나가서 그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것이 입자가 원자가 돼서 크게 또 이루고 이루고 이루고…. 지금 현재 우주 상태가 그러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한 말 되하고 한 말 되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세상만사가,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가, 과거 현재 미래가 한데 합쳐져서 지금 같이 돌아가고 있는 이 상태가 그렇게 혼란하고, 그렇게 광대무변하고, 그렇게 천차만별로 돈다 이겁니다. 이렇게 천차만별로 돌아가는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공덕이 될 수 있느냐. 즉 한마음으로, 한 손으로, 한 몸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러죠. 수많은 빗방울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한바다에 넣으면 한바다니라. 한 몸이 되려면 이렇게 되죠. 이 일체 만물만생의 마음을 한마음에 넣는다면 그게 부처예요. 한마음에 넣었다가 거기에서 또 입자로 배출을 하면 그냥 보살들이 전체 이 공간 안에, 허공에 꽉 차 있죠.

그런데 사람이 원하는 대로 원을 하면 거기서 그냥, 지금 전력이 들어와서 불 들어오듯이 그대로 그냥 가설이 되는 거예요. 가설이 돼서 그냥 쭉쭉 나가요. 그래서 보살은 일체 평등한 이름이지만 그 보살 중에서 배출되는 거는 또 이름을 바꾸어서 나갑니다. 아버지가 남편 노릇을 하려면 남편으로 금방 화(化)하고 금방 아들로 화하고 이러듯이 그 보살이라는 평등한 이름 속에서 약사(藥師)도 되고 관세음(觀世音)도 되고…. 그 이름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이름을 수없이 다 몽땅 가졌으니까 바로 금강좌(金剛座)라고 합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냥 얘기하면 받아들이면서 그냥 이렇게 가지만, 오늘도 혜수 스님이 떡을 몇 개 가지고 올라왔어요. 내가 "너 나 대신 맛 좀 봐라. 맛있나 맛이 없나." 그랬어요. 그러니깐 혜수 스님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요, "내가 맛을 봐서 맛이 좋다고 할 수도 없고 맛이 나쁘다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스님이 맛을 보셔야죠." 이러는 겁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이 그것을 자기가 진짜 실행을 하고 진짜 자기가 그렇게 해 봐야, 진실하게 해 봐야 그 떡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감지할 수가 있단 얘깁니다.

말만 듣고 이름만 듣고 이론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론만 알고 '내가 이만큼 알았으면 됐지.' 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난 그냥 묵묵히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있죠. 어떻게 뭐, 말을 할 수가 없죠. 말없이 한 발짝 떼어 놓는 것이 우주 전체를 한 바퀴 돌고도 남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애가 아프든지 어른이 아프든지 아파서 한번 이렇게 응할 때는 벌써 주인공에 관하면서 할 때, 그게 업으로 만약에 병이 됐다거나 인과성으로 됐다거나 이런다면 반드시 과거를 들러야 이게 되거든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과거로 들러서 이게 오는 겁니다. 과거에서 이게 없어져야 현실에 이게 없어지니까요. 그런데 그냥 이름만, 그거를 모르고 그냥 이름만 부른다면 그게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주인공 찾았는데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와서 공부할 땐 참 잘됐는데 아, 가다가 안되더라. 세상에, 중학교를 졸업했으면 고등학교에 올라갈 생각을 안 하고, 중학교에서 배우던 것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발전이 됩니까? 차를 무난히 타고 가다가 아, 내릴 때가 되면 내려야죠. 내려서 또 탈 때까지 그게 아, 그러면 차에서 내려진다, 안 된다…. 안 되는 것도 거기서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안 되는 걸로 되어 버리는 게 아니라 되게끔 하느라고 안 되는 거다. 한 번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한다면 아무것도 걱정이 없어요. 볼일 볼 거 보고선, 차 도로 타면 되니까. 이게 한생각의 마음인데요, 한 찰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며칠을 고민 고민 하다가 도로 타는 사람이 있고, 몇 달을 그냥 돌다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찰나에 그냥 돌아서 금방 차를 타는 사람이 있거든요.

> 사람의 생각이 그냥 놀고 더불어 같이 돌아갔으면 좋으련만
>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생각 자체가.
> 수레는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데
> 뭐가 그렇게 걸려서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도 법, 안 되는 것도 법" 이런 소리를 왜 했겠습니까? 싸움터에 가면 후퇴하는 거는 왜 있으며 전진하는 거는 왜 있겠습니까? 후퇴하는 것도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후퇴하는 거지, 죽이기 위해서 후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살이가 이렇게 복잡다단한데, 우리 몸뚱이의 생김생김도 그렇게 복잡하고 다단하게 생겼습니다. 명주 고름 같은 실에 그 가설돼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이 두뇌에 다 담겨 있는지 그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그 근본 자체에서 모두 하달을 하고 움죽거리게 하니깐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정신세계, 즉 무(無)의 세계에서 그 한마음으로 입력이 돼서 나가는 배출은 뭐, 말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보고 듣고, 행하고 알고, 그래서 이런 거 (가슴의 핀 마이크를 가리키시며) 하나를 보더라도요, 우리가 해 보지 않는다면 이게 잘못 떨어지는 건지 이게 잘 떨어지는 건지 잘 들리는 건지 모릅니다, 아주 안 해 보면. 이거를 그래도 잘못되든 잘되든 그냥 꽂아 보니까, 이게 안 된 것도 알고 된 것도 알죠. 그러니 우리 모두가 실천을 해 보지 않는 사람에게 한해서는 나의 마음의 발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생활의 발전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생각이 나라를 발전시킬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런 게 있죠. '야! 이게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가? 이 사람네 없애 봤자야 그쪽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아이그, 내버려 두자.' 그냥 자기네들이 짓고 자기네들이 모두 하는 거니까, 그건 참견할 게 없죠. 왜냐하면 뺏어 올 수도 없고 넣어 줄 수도 없는 거니까요. 자기 스스로들 알아야 하는 문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부처님께서 모두 그렇게 잘못되는 거를 잘되게끔 하신다 이러면, 그저 당시에만 좀 빤했다가 도루묵이 돼 버려요. 왜냐하면 그 사람네들 근본 자체가 그렇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생활을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죠.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남이 좀 돈을 갖다가 보태 주고 난 뒤에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도로 그 생활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피어날 수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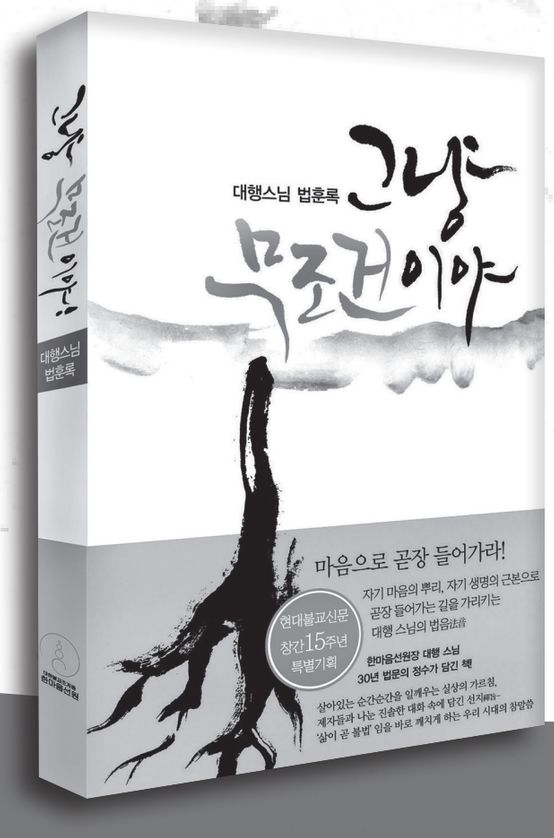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모두 여러분 각자한테 그냥 맡겨 버렸습니다, 다. "그냥 너희들이 잘하면 선의 인과를 가질 것이고, 악으로 저지른다면 악인이 될 것이고, 또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악과 선을 다 버리는 것도 너희 마음에 다 달아 있느니라. 악과 선을 다 버리지 않는다면, 선으로만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악이 범해지고, 악으로 가는 사람은 선이 범해지고 이러기 때문에 둘이 아니다. 이 둘 아닌 도리를 다 버렸을 때에 비로소 보살의 역할을 하며 부처라는 이름을 바로 떨치느니라." 그건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거지 누구가 갖다 준 게 아닙니다. 누가 빼앗아 가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똥 누는 거 대신 똥 눠 주는 사람 봤습니까?

온 근본 속에서 모두가 이뤄지는 것이 바로 근본 능력은 몽땅 거기에 다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컴퓨터도 물질적인 컴퓨터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입력을 한 것만 나오지, 인간의 두뇌의 컴퓨터처럼 자동적으로 이렇게 들고 나고 아주 그 천차만별로 다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못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자동적인 컴퓨터가 얼마나 광대하고 이거 무변한 겁니까? 이 세상을 다 집어삼켜도 손색이 없으리만큼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4년 12월 18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